

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

[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 현장 방문 출장]

2018.10.19.(금)

1 출장 개요

□ 목 적

- 창작뮤지컬 분야의 국제교류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2018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 지원 선정사업의 현장 모니터링
 - 뮤지컬 <공룡이 살아있다> 대만 현지 공연 개막식 참석
-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, 제작 및 투어 등 다방면 협력 증가 대비 민간단체의 개별 해외 진출 한계를 극복
 - 민간 차원에 개별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

□ 일반사항

- 출장 기간 : 9월 21일(금)~9월 23일(일) / 2박 3일
- 출장 장소 : 대만
- 출장 인원 : 2명

소 속	직 급	성 명	성 별	여행 담당업무
공연지원부	부장	차민태	남	○ 뮤지컬 <공룡이 살아있다> 개막식 참석 ○ 대만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 담당자 미팅
공연지원부	사원	김○○	남	○ 대만 카오슝 시정부 운영 극장 방문 ○ 대만 공동제작사(AMcreative) 제작회의 참석 등

□ 주요 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	주요 업무	비 고
1일	9.21(금)	인천→ 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1:30 인천 출발 ○ 13:30 대만 도착 ○ 카오슝 지덕당 극장 방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작사(컬쳐홀릭) 및 대만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 담당자 미팅 ○ 카오슝 인터네셔널 아트 씨어터 방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극장 관리자 미팅 ○ 카오슝 대동아츠센터 방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극장 관리자 미팅 ○ 대만 공동제작사(AMcreative) 미팅 	
2일	9.22(토)	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뮤지컬 <공룡이 살아있다> 관람 ○ 제작사 및 공동제작사 제작협의 미팅 배석 ○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장 미팅 ○ 전문가 네트워킹 참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민태 부장 인사말 	
3일	9.23(일)	대만→ 인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:50 대만 출발 ○ 19:45 인천 도착 	

□ 출장경비 집행내역

예산과목	내 용	집행내역(원)	
		계 획	결 과
일반수용비	· 인사교류 기념품 구입비	200,000	0
	· 데이터 로밍비	66,000	44,000
	· 국내이동경비	96,400	24,400
공공요금 및 제세	· 여행자보험료	100,000	33,370
국외여비	· 항공료	1,157,600	1,137,800
	· 일비	125,776	125,776
	· 숙박비	583,960	450,822
	· 식비	242,568	242,568
업무추진비	· 현지 부대경비	200,000	109,661
계		2,772,304	2,168,397

□ 카오슝市 주요 극장 방문 및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 담당자 미팅

- (미팅 대상)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 공연예술담당 Wu Cheng-Ting 외 5인
- (방문 극장) 카오슝 지덕당 극장, 내셔널 퍼포밍 아트센터, 카오슝 대동 아트센터
- (주요내용①) 시정부 차원의 극장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공공성 있는 작품 위주의 공연 상연
 - 대만 전통극, 무용, 오페라, 아동공연, 국립 오케스트라 등 위주 상연
 - 현재 내셔널 퍼포밍 아트센터(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) 건립 중 (10월 완공 예정) / 2000여석의 대극장 및 다수의 연습장 보유
 - 민간단체가 대관하기엔 힘든 실정
- (주요내용②) 해외 작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아직 폐쇄적인 현장
 - 뮤지컬 장르에 대해 아직 부족한 인식 (전통극, 무용 위주의 공연 주류)
 - 그러나 최근 타이중에서 뮤지컬 <팬레터>, <헤드윅> 등의 성공적인 공연으로 대만 내 해외 뮤지컬에 대한 관심도 상승 중
 - 카오슝 시의 경우 아동 뮤지컬 등 공공성을 지닌 공연 위주로 상연 시도 중

□ 대만 공동제작사(AMcreative) 및 컬쳐홀릭 대표 미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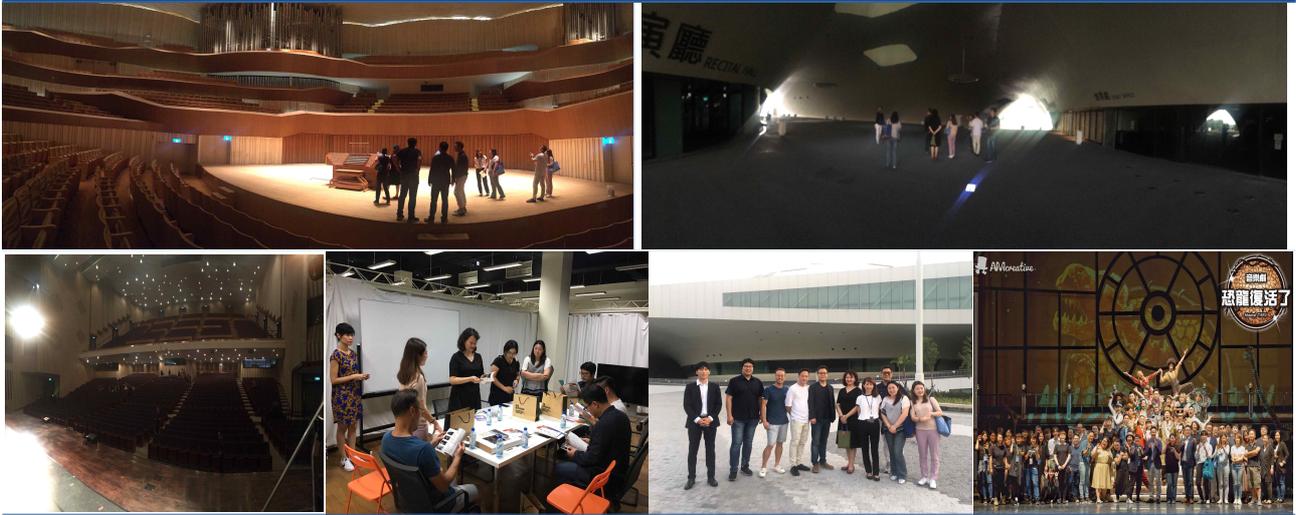
- (미팅 대상) 대만 공동제작사(AMcreative) 대표 Vanessa Lin, 컬쳐홀릭 대표 진영섭
- (주요내용①) 향후 <공룡이 살아있다> 공연 계획 논의
 - 카오슝 공연 이후 타이중을 거쳐 타이난 공연 계획
 - 현재 홍콩 내 극장과도 공연 협의 중
- (주요내용②) 국내 뮤지컬 진출 관련 대만 정부와 협의 가능성 논의
 - 현재 대만 정부가 해외 공연에 폐쇄적이고 뮤지컬에 대한 인식 부족
 - 또한 장기공연의 개념이 별로 없으며 대관에 제약이 있음

- 그러나 정부 산하 극장을 중심으로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
- 따라서 정부 산하 극장들을 중심으로 협약하여 국내 공연을 진출시키는 방식을 추천
- 예시) 타오위안 극장의 경우 가족뮤지컬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
→ 기간을 협의, 일정 기간 동안 한국 뮤지컬을 특별 기획으로 상연 (다만 페스티벌 기간에 비해 상연 횟수가 적을 것)
- 가족 뮤지컬의 경우 자막보단 현지 언어로 공연하는 것이 효과적
→ 공연의 현지화를 위한 공동제작사나 이에 대한 지원이 별도 필요

□ 전문가 네트워킹 참석

- (참석 대상) 극단 연우무대 유인수 대표, 컬처홀릭 대표 진영섭, 상상마루 엄동열 대표
- (주요내용①) 뮤지컬 사업 개선안 논의
 - (한국뮤지컬어워즈) 가족뮤지컬 분야 신설 필요
 - (한국뮤지컬어워즈) 대만이나 중국 등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시상 부문 신설 → 국내 작품 해외 진출 기회 마련
 - (뮤지컬 해외유통지원) 해외공동제작 지원 시 위원회-해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필요 → 지원 사업 이후 단체 스스로 해외 진출의 기회 확보 가능토록 간접지원 체계 마련
- (주요내용②) 공연예술 실황중계 개선 논의
 -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한 실황중계에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,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명확한 배분 가이드 필요
 - 온라인 다시보기, IPTV 서비스 등 향후 공연의 영상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예술 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필요





대만 출장 주요 사진(카오슝 시 극장 시설 등)

3 시사점

□ 국내 창작공연의 현지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

- 해외 공동제작사와의 현지화 작업을 통한 대만 관객 확보
- 향후 타이중, 타이난 등의 투어 및 홍콩 및 중국으로의 진출 할로 모색
- (한계점) 대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별 1회 공연의 한계

□ 공공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

- 카오슝 시정부 문화국 담당자 및 대만 현지 공연 제작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 확보
- 국내 뮤지컬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대만 측과의 교류 확대 가능성 확인

□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성

- 국가 간 공공차원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 마련 확대 필요
-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, 홍콩,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으로의 진출 방안 모색